

## 1 개요

문전본풀이는 마루의 출입구를 지키는 문전신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남선비는 곡식 장사하러 갔다가 노일제데귀일의 딸을 만나는데, 노일제데귀일의 딸은 남선비를 속여 거지꼴로 만들고 남편을 찾아온 여산부인을 죽인 뒤에 일곱 아들까지 죽이려 하다가 똑똑한 막내아들 녹디생인에게 발각당하여 도망하다가 죽고, 여산부인은 아들이 서천꽃밭의 꽃으로 살려내었다.

## 2 내용

옛날 남선고을 남선비와 여산고을 여산부인이 가난하게 살면서 아들 일곱을 낳았다. 하루는 여산부인이 자식도 많고 하니 무곡장사[貿穀商]나 해보자고 제안하였다. 남선비가 그리 하자 하고 가족을 이별하고 빌린 배를 타고 오동나라 오동고을로 갔다.

오동나라 오동고을에 이른 남선비는 노일제데귀일의 딸에게 속아 배도 잃고 오막살이에서 가난뱅이로 살았다. 여산부인은 남선비 소식이 없자, 일곱 형제가 만들어준 배를 타고 찾아나섰다. 오동나라 오동고을에 이르러 남선비와 만났으나 곧 노일제데귀일의 딸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노일제데귀일의 딸은 여산부인의 옷을 입고 여산부인 행세를 하면서 남선비에게 노일제데귀일의 딸 행실이 괘씸해서 죽이고 왔다고 하였다.

노일제데귀일의 딸은 남선비와 함께 배를 빌려 타고 남선고을로 향하였다. 남선고을 가까이 이르자 똑똑한 막내 녹디생인은 벌써 진짜 어머니가 아님을 알아챘다.

노일제데귀일의 딸은 병을 핑계하여 남선비로 하여금 점을 보게 하고 점쟁이로 변신하여 일곱 형제 간을 내어 먹어야 낫는 병이라고 하였다. 남선비가 칼을 가는 것을 이웃집 청태산마구할망이 보고 그 사정을 알았다. 청태산 마구할망은 급히 일곱 형제를 찾아 사실을 알려주었다. 녹디생인이 남선비에게 가서 자신이 대신 형님들 간을 내어 주거든 마지막에 자신의 간만 아버지가 내면 될 것이라고 설득하고 칼을 건네받고 나왔다.

녹디생인은 칼을 받고 돌아와 형님들과 함께 깊은 산속으로 올라가다가 배가 고파 양지 바른 곳에 앉아 졸다가 꿈에 나타난 어머니의 도움으로 산돼지의 간을 내어 집으로 갔다. 집 근처에 이르러 녹디생인은 형님들을 대기시키고 혼자 집안으로 들어가서 노일제데귀일의 딸에게 간을 주어 권하였다. 노일제데귀일의 딸은 중병든 사람이 약을 먹는 것은 보지 않는 법이라고 하고 녹디생인을 내쳤다. 녹디생인은 방에서 나와 손가락으로 창구멍을 뚫

어 안을 들여다보니, 노일제데귀일의 딸이 간을 먹는 척 하면서 자리 아래에 묻고, 입 주위에 피를 바르는 것이었다.

녹디생인이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머리에 이나 잡아드리겠다고 하니, 중병 든 사람의 이는 잡지 않는 법이라고 하였다. 다시 방을 치워 드리겠다고 하니 역시 중병든 사람 방은 치우지 않는 법이라고 하였다. 녹디생인은 크게 성을 내면서 노일제데귀일의 딸 머리카락을 붙잡고 휘둘러 자빠뜨려놓고, 간 여섯 개를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소리쳐 형님들을 불러들였다. 놀란 남선비는 달아나다가 정낭에 목걸려 죽고, 노일제데귀일의 딸은 변소에 들어가 머리카락으로 부춘돌에 목을 메어 죽었다. 일곱 형제가 달려들어 노일제데귀일의 딸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놓으니 온갖 물건, 동물, 곤충 등이 되었다. 일곱 형제는 서천꽃밭으로 올라가 황세곤간을 달래어 환생꽃을 따다가 오동나라로 가서 어머니를 살려내었다.

어머니는 삼덕조왕, 아버지는 올레 주목 정쌀지신으로 들어서고, 위로 다섯 형은 오방의 신, 여섯째는 뒷문전, 녹디생인은 일문전(一門前)으로 들어섰다.

### ③ 특징

남선비는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로, 노일제데귀일의 딸은 철저히 악한 존재로, 여산부인은 그저 불쌍한 존재로 설정되었다. 노일제데귀일의 딸은 악한 계모의 전형을 보여준다. 노일제데귀일의 딸과 녹디생인의 속이고 속이는 경쟁이 흥미를 일으키는 요소이다.

### ④ 핵심어

남선고을, 남선비, 여산고을, 여산부인, 무곡장사, 노일제데귀일의 딸, 녹디생인

### ⑤ 원전 서지사항

문전본풀이(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 ⑥ 관련 자료